

“어려운 이웃과 하나라도 더 나누고파”

박창수 신광상사 대표·김태한선일물산 대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하나라도 더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목포 지역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박창수 신광상사 대표와 김태한 선일물산 대표는 6년째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고 있다.

30년 협력 관계로 맺어진 박창수·김태한 대표는 기업에서 생산한 특산품을 취약계층에 전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지역 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3천456만원 상당의 조미김 504상자를 공동 기탁했다.

해당 기탁 물품은 만호동을 비롯해 산정·대성·목원·유달·죽교·북항동 등 목포 권역 7개 행정동의 취약계층 세대와 인근 경로당, 지역 아동센터연합회 산하 복지 시설 등에 일괄 배

원초 1차 가공·조미김 생산 30년 협력

2021년부터 목포 소외계층에 김 전달

누적 1억6천만원...“지역사회 동반성장”

분됐다.

두 대표는 30년 넘게 끈끈한 인연을 맺어온 지역 사업 파트너로, 박 대표의 신광상사가 진도에서 원초를 1차 가공하면 김 대표의 선일물산이 이를 넘겨받아 완제품 조미김으로 최종 생산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은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을 목표로 생산부터 가공, 기부에 이르기까지 물류의 전 과정을 지역 내에서 소화하는 지역 밀착형 선순환 복지 지원 구조를 직접 기획해 실행해



지난달 31일 박창수(왼쪽) 신광상사 대표와 김태한 선일물산 대표가 목포 지역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3천456만원 상당의 조미김 504상자를 공동 기탁했다. <신광상사 제공>

였다.

두 기업의 합동 기탁은 2021년 108만원 상당의

물품 지원으로 첫발을 뗐다.

이후 2022년 1천878만원, 2023년 3천275만원, 2024년 4천653만원, 2025년 2천925만원 등 매년 꾸준한 기탁해 왔으며, 올해 3천456만원을 더해 6년간 지역 사회에 환원한 총 누적 기탁액은 1억6천205만원에 달한다.

박 대표는 과거 만호동 주민자치위원장을 역임하며 지역 현안 해결과 행정 지원에 참여해 왔다.

김 대표가 이끄는 선일물산은 지난해 무역의 날을 맞아 2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탄탄한 기업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박창수·김태한 대표는 “작은 마음으로 시작한 물품 지원이 해를 거듭할수록 기업인으로서 가져야 할 더 큰 책임감과 보람으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소외 이웃의 생활 환경을 살피며 지역사회의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혜선기자



구례소방, 지리산 스카이런 인명구조 훈련

구례소방서는 지난 8일 구례군청 및 지리산 스카이런 관계자와 함께 긴급 상황 발생 시 상호 협력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합동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했다.

현장에 투입된 구조대원들은 소방 보유 장비를 활용해 구조 대상자에게 신속히 접근하는 전문 기술인 ‘로프 엑세스’ 기법을 집중적으로 숙달하며 구출 절차를 점검했다.

한만조 소방서장은 “유관 기관 및 업체와의 확고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주기적인 합동 훈련을 실시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세중기자



해남경찰, ‘관계성 범죄 교정’ 업무협약

해남경찰서는 지난 8일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5개 경찰 협력단체 및 해남성폭력상담소와 ‘관계성 범죄 가해자 상담·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찰은 대상 가해자를 조기 발굴해 전문 기관에 연계하고, 협력단체는 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지원한다.

해남성폭력상담소는 연계된 가해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맞춤형 상담과 심리 치료를 전담한다.

박미영 경찰서장은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폭력 없는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기자



영암 신북파출소, 교통사고 예방 간담회

영암경찰서 신북파출소는 9일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농업협동조합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령자 교통사고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석정호 신북파출소장은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추진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기자

결혼

▲김두환(화순군 산림과장)·윤영경씨(장남 김인호(완도군청, 오백만전 광주공고 교사)·이계순(전 장성군청)씨 차녀 오연주(전남도청)양=11일(토) 오후 4시 광주 서구 삼부대로 글로벌리웨딩홀 1층 리비어홀.

부음

▲박수남씨(별세, 이광재(전 한국지엠 본부장)·홍재(전 광주일보 주필)·봉재(전 세지중 교장)·경재(시인·전주대 교수)·경란(아동문학가)·‘동심’ 대표)씨 모친상, 임형체(자영업)씨 장모상=발인 10일(금) 오전 8시30분 광주 VIP장례타운 301호(02-521-4444).

▲고삼순씨(별세, 나영식(전 금호건설 본부장)·승교(전 대우차 본부장)·영금·선희씨 모친상, 황성철(전 광주MBC 보도국장)·모용남(모용남 치과원장)씨 장모상, 김명희씨 시모상=발인 11일(토) 오전 9시 광주 서구 VIP장례식장 501호(06-2-521-4444).



광주북구가족센터 ‘우리가족 영화 본 DAY’ 성료

광주북구가족센터는 9일 “코레일 광주본부 후원으로 전달 ‘우리가족 영화 본 DAY’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북구 관내 다문화·조손·한부모·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150여명이 참여해 함께 영화를 관람했다.

참여자들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

께 문화활동을 즐기며 소통과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가족 간 관계 증진과 개인의 재충전을 도모하는 자리로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한편 북구가족센터는 ‘우리가족본다사업’을 통해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사례관리·교육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윤창용기자



전남도, 외국인주민 의료지원 실무협의체 회의

전남도는 지난 8일 ‘전남 외국인주민 의료지원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어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도입해 올해 107곳으로 확대 운영하는 외국인안심병원의 민·관·학 협력 기반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체에선 전남도의사회 의료봉사단, 공공 의료기관, 이주민 지원단체, 대학 등 민·관·학 26개 기관이 참여해 외국인주민 의료지원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씨젠의료재단, 여수시 가족센터,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등 4개 기관이 신규 참여해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김재정기자

전남도는 지난해 전국 광역자치체 최초로 22개 시·군 7개 의료기관을 전남도 외국인안심병원으로 지정했으며, 올해는 종합병원 26개소가 모두 참여하고 32개소가 신규 지정돼 총 107개소로 확대됐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3대 의료 취약 분야인 산업재해, 감염병,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국립목포병원, 국립나주병원 등 전문 공공의료기관 3곳도 참여하면서 전국 최대 규모 의료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됐다.

김민선 전남도 이민정책과장은 “외국인주민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의료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기자



전남개발공사, 세계섬박람회 입장권 5억 기부 약정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8일 전남도청에서 전남도, 여수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입장권 구매 및 기부 약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황기연 전남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해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 정현구 여수시 부시장, 김중기 조직위 사무총장, 김동국 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박람회의 성공 개최와 지역 상생을 위한 뜻을 모았다.

약정에 따라 전남개발공사는 전남사회복지공

동모금회를 통해 5억원 규모의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입장권을 구매하고 해당 입장권은 향후 전남 22개 시·군 문화 취약계층 등에 전량 지원할 계획이다. 또 조직위원회는 정상이 대비 30% 할인된 가격을 적용해 지원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여수섬박람회를 전남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로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여수해수청-목포해양대, 북극항로 대비 MOU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8일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실습선 ‘세계로호’에서 최부흥 목포해양대 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학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해양 교육 기관과 손잡고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전문 인재 육성과 친환경 에너지 허브 항만 도약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목포해양대는 북극항로 및 친환경 선박 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과 관련 실증 연구를 집중 추진한다.

여수해수청은 연구와 교육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이 보유한 항만 인프라를 개방·지원하며, 양 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여수·광양항의 선제적인 북극항로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여수=김진선기자



이다. 정대성 여수해수청장은 “이번 협약은 다가올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는 실질적인 관·학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교육과 연구, 항만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여수·광양항의 미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기자

동강대 RISE사업단-모비엔트, 모빌리티 인재양성 ‘맞손’

동강대가 자동차 모듈 전문 제조기업인 모비엔트와 손잡고 지역 전략산업인 미래 모빌리티 분야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9일 동강대학교에 따르면 최근 RISE사업단은 교내 교수연구동 1층 글로벌 존에서 모비엔트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모비엔트는 현대위아 계열의 자동차 모듈 전문 제조기업으로, 광주공장을 기반으로 사시 모듈 및 자동차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동강대는 미래 모빌리티 전문가를 육성하고 관련 분야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며, 지역 정주형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무 모비엔트 경영지원실장은 “동강대와 협력해 산업 맞춤형 우수 인재를 키우고 지역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위형도 RISE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은 광주 전략산업과 대학 교육을 연계해 미래 모빌리티 현장에서 활약할 실무형 인재 양성의 기회다”고 말했다. /박선용기자

담양경찰, 미활용 치안센터 경찰관 상시 배치 운영

담양경찰서는 9일 “지난해 6월부터 인력 부족으로 비어있던 관내 치안센터에 평일 야간과 휴일 주간 시간대 지원 근무 경찰관을 상시 배치해 운영 중이다”고 밝혔다.

이번 상시 배치는 농촌 지역의 치안 공백을 해소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마을 순찰, 고령층 보이스피싱 예방, 농기계 교통사고 교육 등 맞춤형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양수근 경찰서장은 “치안센터 활성화를 통해 범죄 취약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치안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